

외톨이였던 내가 상상하고 곱씹던 만남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가. 한동안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겁이 많고 소심한 여자에게는 어떤 남자가 어울릴까. 혹시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지나 않을까. 신호등을 건너다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저런 걱정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갈 수 없는 여자에게 어울리는 남자는 과연 어떤 남자일까.

“내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시오. 자, 갑시다!” 어떤 일에도 기죽지 않는 근육질의 용감한 남자? 아마도 그런 남자와 함께라면 심장이 터져 버리리라. 겁 많고 소심한 여자에게는 마찬가지로 겁 많고 소심한 남자가 어울릴 거다, 라고 나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다. 이 겁 많고 소심한 여자가 아주 높고 가파른 계단 앞에 서서 별별 떨고 있을 때, 옆에 있는 남자도 여자와 마찬가지로 별별 떨고 있다면 여자는 좀더 쉽게 남자에게 손을 내밀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한 계단 한 계단을 그야말로 별별 떨면서 조심조심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나는 생각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 이유는, 내가 바로 겁 많고 소심한 여자였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6년 내내, 나는 늘 찾고 찾았다. 나와 똑같이 겁 많고 소심한 아이를. 그러나 반 아이들은 모두 쾌활했고, 하루 종일 말 한 마디 하지 않는 나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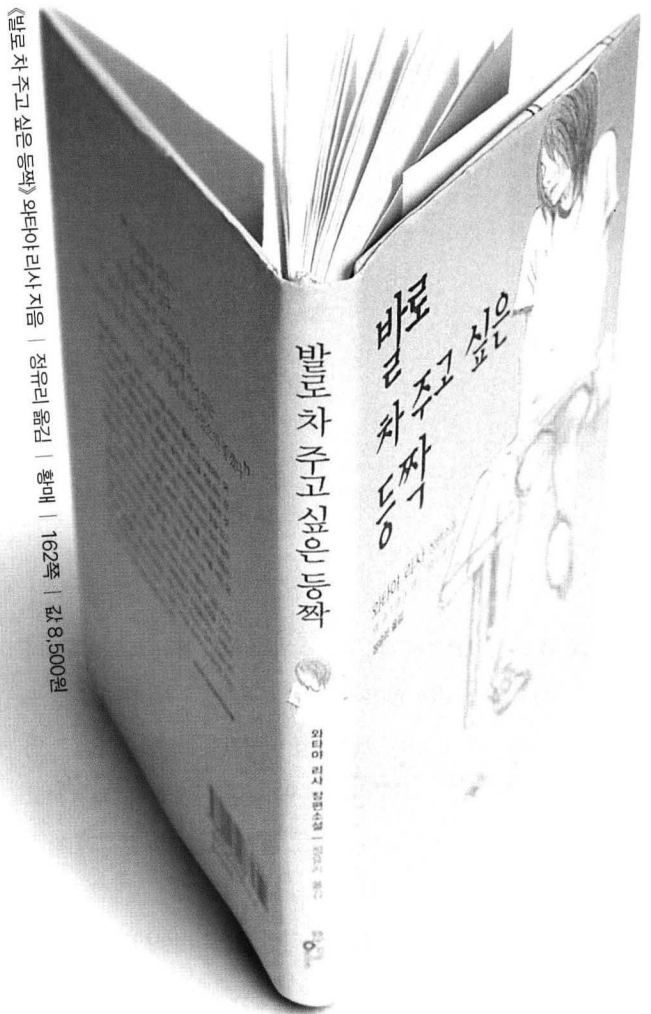
와타야 리사의 장편소설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하츠’는 내 유년의 어느 한 시절을 그대로 옮겨다놓은 듯한 캐릭터였다. 그리고 ‘하츠’와 ‘나나가와’의 만남은 유년시절, 외톨이였던 내가 혼자서 상상하고 곱씹던 바로 그런 만남이었다.

바로 앞에서는 키누요네 그룹의 남자아이들이 분위기를 띄우려는 듯 슬라이드에 필사적으로 대사를 집어넣고 있었다. 대사래 봤자 따분하기 이데 없는 것들뿐이었지만, 가끔, 정말로 가끔은 재미있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나의 괴로운 자기와의 싸움은 시작된다. 턱을 괴어 손바닥으로 볼과 입을 일그러질 정도로 눌러 막고, 미간에 힘을 주어 무뚝뚝한 얼굴을 유지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노력한다. 고등학교에 들어와서부터, 라고는 해도 벌써 몇 번이나 이렇게 웃음을 참아냈는지, 웃는다는 건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이고, 외톨이로서 마음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에는 보통 이상의 용기가 필요한 법이다. 만약 주변의 아이들이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거나 한다면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81쪽)

외톨이로서 마음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에는 보통 이상의 용기가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아이, 하츠. 나는 이 하츠라는 여자아이에게 연민과 동료의식마저 느꼈다.

쓸쓸함은 울려 퍼진다. 귀가 아플 만큼 높고 맑은 방울소리로 울리며 가슴을 죄어 오기 때문에, 적어도 주위에는 들리지 않도록 나는 프린트를 손가락으로 찢는다. 가늘고 길게, 가늘고 길게. 종이를 찢는, 귀에 거슬리는 그 소리는 고독의 소리를 지워준다. 따분해 하는 것처럼 꾸며주기도 하고. 업록체? 오오카나다모? 흥, 이라는 식의 태도. 당신들은 미생물을 보고 법석을 떨어대지만(순 웃음), 난 사양하겠어. 벌써 고등학생이고, 뭐, 당신들을 결눈질하면서 프린트라도 찢지요, 따분하게, 라고 하는 듯한 이 태도.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외타마리시킴 | 정유리 옮김 | 황매 | 162쪽 | 값 8,500원

까만 실험용 책상 위에 놓인 조각난 종이더미 위에 또 하나, 국숫발처럼 가늘고 긴 종이조각을 올려놓는다. 높이 쌓인 종이의 산, 내 고독한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산.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5쪽)

소설의 첫 장면에서, 하츠는 실험시간에 프린트를 찢고 있다. 프린트를 찢으며 자신과 같은 종류(누군가 반 아이들의 관계를 도표로 그린다고 할 때, 그 도표의 틀 밖에 있는 아이)의 또 하나의 나머지 인간, 니나가와를 바라본다.

니나가와는,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도록 무릎 위에 잡지를 펼쳐놓고 읽으며 시간을 죽이고 있었다. 아니 그건 읽는 게 아니다. 읽는 포즈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데도 보고 있지 않은 멍한 눈으로, 오로지 같은 페이지만 주시하고 있다.

우리는 반 아이들이 즐겁게 웃을 때마다, 선생님이 '조별로 협력해서 스케치하세요' 라고 말할 때마다, 한 살씩 나이를 먹어간다. 그리고 잡지를 보거나 프린트를 찢거나 하며 어떻게든 이 지루한 시간을 때움으로써 급격한 노화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8쪽)

잡지를 보거나 프린트를 찢거나 하며 급격한 노화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이 두 명의 나머지 인간, 하츠와 니나가와는 학교에서 말을 나누는 사이가 된다. 니나가와가 폭 빠져 있는 올리짱이라는 모델을 하츠가 실제로 만나본 적이 있다는 사실을 계기로.

“나, 역 근처 무지에서 이 사람 만난 적 있어” 라는 하츠의 말 한마디. 니나가와는 하츠를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하츠는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말을 나눈 사람인 니나가와를 따라 그의 집으로 간다. 그러나 집에 초대해 놓고도 니나가와는 하츠에게 등을 돌린다.

“아, 올리짱의 라디오 방송 시간이다. 미안, 좀 듣는다.”

니나가와는 민첩하게 수납장에서 CD플레이어를 꺼내더니 은색의 안테나를 최대한 길게 뽑아 익숙한 손놀림으로 45도 정도의 위치까지 기울였다. 그리고 이쪽을 등지듯 하고 CD플레이어 앞에 앉아 이어폰을 꽂는다. 라디오, 나를 내버려두고, 혼자 들을 작정인가 보다. 유치원 시절, 다 같이 놀고 있는데 혼자 숨어서 과자를 먹거나 게임기를 독점하려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꼭 그 짝이다. 그의 사교성은 유치원 정도에서 멈춰버렸는지도 모른다.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57쪽)

올리짱의 실제 모습은 알지 못한 채, 패션잡지나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올리짱으로부터 주어진 정보만을 모으고 있는 니나가와. 쉬



이 글을 쓴 이명랑은 1997년 문학무크지 <새로운>에 시 <에피소프의 꽃> 외 2편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장편소설 <꽃을 던지고 싶다>, 연작소설집 <삼오식당>을 냈으며, 2002년 문예진흥원의 '내일을 여는 젊은 문학인'

창작지원금'을 수혜했다. 현재 창작활동과 함께 중앙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서 문예교사활동을 하고 있다.

는 시간에 반 아이들은 모두 친구들과 잡담을 하거나 하는데, 등뼈가 무르기라도 한 것처럼 항상 책상에 한쪽 볼과 한쪽 귀를 찰싹 붙이고 잠을 자는 니나가와. 그런 그를 바라보는 하츠의 가슴은 먹먹하다. 좋아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괴롭히고 싶은 건지, 자신도 모르는 니나가와에 대한 감정. 그 감정을 하츠는 발로 차주고 싶다, 라고 표현한다.

자기 자신조차 잊고 오로지 올리짱만을 바라보는 니나가와와 함께 하츠는 올리짱의 첫 라이브 콘서트를 보러간다. 콘서트가 끝나고 올리짱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대기실의 출입구에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밀치고 니나가와는 앞으로 나아간다. 사람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 가운데, 드디어, 니나가와와 올리짱 사이의 거리는 로프 하나로 좁혀지지만, 올리짱은 웃는 얼굴 그대로, 니나가와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다른 팬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그녀만을 위해 준비된 꽃길 위를 걸어 그가 있는 곳을 피하듯 통과해 앞으로 나아간다. 니나가와가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가자 순식간에 스태프들이 나타나 니나가와와 올리짱 사이를 깨끗하게 삭둑, 하고 잘라낸다. 니나가와는 스태프들에게, 그리고 올리짱에게, 냉정하게 '처리' 되어 버린 것이다. 엉망으로 벌어진 옷깃도 내버려둔 채 텅 빈 눈을 하고 우두커니 서 있는 니나가와. 그런 그가 하츠는 견딜 수 없다.

그날 밤, 니나가와는 자신의 방 베란다에서 하츠에게 말한다. "올리짱에게 다가갔을 때, 나, 그 사람을 이제까지 그 어느 순간보다 가장 멀게 느꼈어. 그녀의 부스스기들을 굶어모아 상자 안을 채워 넣던 그때보다, 훨씬."

말이 계속되길 기다렸지만 니나가와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무릎 위로 얼굴을 박았다. 내게 등을 보인 채, 얇은 여울에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면 냇물 바닥의 모래가 피어올라 물을 흐리듯이 '예의 그기분' 이 바닥에서 부터 일어나 마음을 흐린다.

고통을 주고 싶다. 발로 차주고 싶다. 사랑스러움이라기보다, 뭔가 더욱 강한 느낌. 발을 살짝 들어올려 발끝으로 그의 등을 지그시 누르자, 힘이 들어가면서, 엄지발가락의 뼈가 가볍게 '딱' 하는 소리를 냈다.

"아퍼! 뭔가 딱딱한 게 등에 닿았어."

발가락 끝에 닿았던 등이 완만하게 뒤로 젖혀진다.

"베란다 창틀 아냐?"

니나가와는 몸을 돌려 먼지가 가볍게 쌓인 기늘고 검은 창틀을 이상한 듯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그리고는 창틀 아래 놓인 내발을 내려다본다. 엄지발가락부터 새끼발가락까지, 점점 작아지는 발톱들을 바라본다. 난 모르는 척 시치미 댄 얼굴로 댄 데를 본다. 숨결이 떨린다.

《발로 차주고 싶은 등짝》(150쪽)

여명이 밝아오는 베란다에서 열일곱의 하츠는 니나가와의 열일곱을 향해 발을 뻗는다. 니나가와는 자신의 열일곱 속으로 불쑥 뛰어 들어온 하츠의 발가락을, 엄지발가락부터 점점 더 작아지는 발톱까지 내려다본다. 이토록 떨리는 열일곱을 왜 나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걸까? ❦